

■ 문헌연구 :

필사본 <자탄가(自嘆歌)> 해제

최한선* · 임준성**

1. 해제

작자를 알 수 없는 가사작품으로 일제시대에 학도병으로 끌려가 부모보다 세상을 먼저 떠난 아들을 그리워하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으로 규방가사에 해당한다. 작품의 창작시기는 끝부분에 ‘기해(己亥) 십이월(十二月) 십칠일(十七日)’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1959년으로 추측된다.

작품은 기름을 먹인 두루마리에 쓰여 있으며, 4음보 1구가 위아래로 구분되어 있다. 상하 2단 구성으로 되어 있으며, 4음보 2구를 1행으로 기준으로 하여 모두 388행의 장편이다. 4음보 1행이 끝난 다음에 한 줄 간격으로 구분하고 있어 작품을 읽는데 매우 편리하게 짜여 있다. 작품의 보존상태는 좋으며, 두루마리 위쪽에 파란 잉크가 번져 있으나 전체적으로 글씨를 알아보는데 어려움은 없다.

작품 속의 주인공 만섭은 작자의 아들이다. 고향은 경상북도 상주이다. 19세에 장가들었으나 이듬해 정월에 일본 아오모리[靑森]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징집을 당해 학도병으로 출전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일본은 태평양전쟁을 벌이고 있었으며, 특히 식민지 치하의 젊은 사람들이 강제로 전쟁에 끌려갔다. 만섭도 이를 피하지 못하고 중국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전

* 전남도립대학, ** 조선대학교

사하고 말았다. 전사통지서를 받은 만섭의 부모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이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행여나 다시 찾아오지 않을까 하고 실낱같은 기대를 걸어보지만 만섭은 전장에서 이미 한 줌의 재가 되어서 돌아올 뿐이다. 만섭의 부인은 이미 청상(靑裳)이 되어버렸으며, 아이 또한 아버지의 얼굴을 모르는 유복자(遺腹子)의 불쌍한 처지일 뿐이다.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마음이야 오죽 답답하고 애처로울 뿐이다. 그러나 한탄 일변조로 그치지 않는다. 비록 먼저 떠나보낸 자식이지만, 늘 함께 있을 것이라고 다짐한다. 며느리, 손자와 함께 열심히 살겠다는 희망의 끈을 놓고 있지 않는다.

이 작품은 시대의 아픔을 통해 전쟁이 주는 참상을 몸소 아버지의 처지에서 노래하고 있는 점이 특색이다. 여기서 작자가 남성이라는 점은 그동안 규방가사의 작자가 여성 일변도였음을 감안할 때, 상당히 예외적인 일로 보인다. 이는 해방 이후 규방가사의 작자층이 넓어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먼저 떠나보낸 자식을 위로하며 쓴 작품이 흔하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이 작품이 지닌 희소성이라 하겠다.

2. <자탄가> 현대역

십칠세에 단을가서 일년을 고생타가
 십팔세에 돌아들어 상주¹⁾로 전학하여
 그럭저럭 이태만에²⁾ 농업학교 졸업하고
 십구세에 장가³⁾가서 요조숙녀⁴⁾ 데려다가
 신정을 미흡하고⁵⁾ 일본청삼⁶⁾ 들어가서

1) 상주 : 경상북도(慶尙北道) 상주(尙州).

2) 이태만에 : 두 해만에.

3) 장가(丈家) : 사내가 아내를 맞는 일.

4) 요조숙녀(窈窕淑女) : 말과 행동이 품위가 있으며 얌전하고 정숙한 여자.

일년을 남아있어 고국으로 돌아와서
 임오년⁷⁾ 시월달에 자모환갑⁸⁾ 잘치르고
 지원병⁹⁾에 억제하여¹⁰⁾ 사차불피¹¹⁾ 못면하고
 결성으로 입소¹²⁾하여 육개월 훈련하고
 계미년¹³⁾ 시월달에 대구¹⁴⁾로 입영¹⁵⁾하여
 일주일 훈련하고 흉지¹⁶⁾로 떠난후에
 편지야 오건마는 세세정답¹⁷⁾ 하나없고
 갑신년¹⁸⁾ 윤사월¹⁹⁾에 편지한장 부치고서
 내무반장 지내고서 상동병 입경하여
 다시한번 편지없고 전쟁으로 들어가서
 남경북경²⁰⁾ 들어갈제 대륙장을 겨우밟고
 호남산성 들어갈제 기치창검²¹⁾ 찬란²²⁾하고
 금고함성²³⁾ 진동²⁴⁾하며 형양양성²⁵⁾ 공파²⁶⁾하고

-
- 5) 신정(新正)을 미흡(未洽)하고 : 양력 1월 1일을 제대로 지내지도 못하고.
 6) 일본청삼 : 일본의 지명 아오모리[靑森]. 혼슈[本州] 남쪽 끝에 있는 현(縣).
 7) 임오년 : 서기 1942년.
 8) 자모환갑(慈母還甲) : 어머니가 예순 한 살이 되던 해.
 9) 지원병(志願兵) : 스스로 입대를 원한 병사.
 10) 억제하여 : 억지로 입대하여.
 11) 사차불피(事此不避) : 이 일을 피할 수 없음. 또는 사차불피(死且不避)로도 쓰이며 뜻은 죽는 한이 있어도 피할 수가 없음.
 12) 입소(入所) : 훈련소, 연구소, 교도소 등에 들어감.
 13) 계미년 : 서기 1943년.
 14) 대구 : 경상북도(慶尙北道) 대구(大邱).
 15) 입영(入營) : 입대(入隊)와 같은 말로 군대에 들어가 군인이 됨.
 16) 흉지(凶地) : 사지(死地)와 같은 말로 전쟁터를 말함.
 17) 세세정답 : 사정을 자세히 쓴 답장.
 18) 갑신년 : 서기 1944년.
 19) 윤사월(閏四月) : 윤달인 사월을 이르는 말.
 20) 남경북경(南京北京) : 중국의 도시 이름.
 21) 기치창검(旗幟槍劍) : 군대에서 쓰던 깃발, 창, 칼 따위를 통틀어 이르던 말.
 22) 찬란(燦爛) : 빛깔이나 모양 따위가 매우 화려하고 아름다움.
 23) 금고함성(金鼓喊聲) : 금고는 군중(軍中)에서 호령하는 데 사용하던 징과 북. 함성은 여러 사람이 함께 지르는 고함 소리.

호남성²⁷⁾ 영릉터와 양부근에 다다라서
 병이²⁸⁾ 날라들어²⁹⁾ 두병화상 홀로누워
 의사에게 치료할제 목이메여 말못하고
 중대장³⁰⁾ 중위³¹⁾앞에 진충혈성³²⁾ 말을하고
 음옥장서 들어갈제 부모생각 오죽하며
 이십팔세 청춘으로 처자생각 오죽할까
 애고애고 우리만섭 신체좋고 기력좋고
 인심까지 좋건만은 전쟁고혼³³⁾ 불쌍하다
 칠팔십을 다살고서 부모국³⁴⁾에 죽더라도
 죽을때는 원통³⁵⁾커든 하물며 만리타국³⁶⁾
 화중고혼³⁷⁾ 되진말라 애고애고 불쌍하다
 상긱상긱³⁸⁾ 웃는얼굴 어느천년 다시볼꼬
 옛날에 초패왕³⁹⁾도 천지⁴⁰⁾망해 탄식⁴¹⁾커든

24) 진동(振動) : 흔들려 움직임.

25) 형양양성(滎陽陽城) : 중국의 지명.

26) 공파(攻破) : 공격하여 쳐부숨.

27) 호남성(湖南省) : 중국 서쪽에 자리한 호남성을 말함.

28) 병이가 : 병(病)이.

29) 날아들어 : 갑자기 들어.

30) 중대장(中隊長) : 중대의 최고 지휘관.

31) 중위(中尉) : 위관 계급의 가운데.

32) 진충혈성(盡忠血誠) :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정성과 충성스러운 마음.

33) 전쟁고혼(戰爭孤魂) : 전쟁으로 인해 희생되어 의지할 곳 없이 떠돌아다니는 외로운 넋.

34) 부모국(父母國) : 부모님의 나라. 곧 모국(母國), 조국(祖國)

35) 원통(冤痛) : 분하고 억울함.

36) 만리타국(萬里他國) : 조국이나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나라.

37) 화중고혼(火中孤魂) : 불에 타 죽은 사람의 외로운 넋.

38) 상긱상긱 : 눈과 입을 귀엽게 움직이며 소리 없이 가볍게 자꾸 웃는 모양.

39) 초패왕(楚霸王) : 중국 진(秦)나라 때 무장인 항우(項羽, BC.232-BC.202)를 달리 부르는 말. 그는 숙부 항량(項梁)과 함께 군사를 일으켜 유방(劉邦)과 협력하여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스스로 서초(西楚)의 패왕(霸王)이 되었다. 그 후 유방과 패권을 다투다가 해하(垓下)에서 포위되어 자살하였다고 전함.

40) 천지(天地) : 하늘과 땅을 아울러 이르는 말.

천지를 잘못 만나 이지경이 되었도다
 하느님요 하느님요 아까워라 우리만섭
 명문대가⁴²⁾ 좋은집에 인도환생⁴³⁾ 시켜주소
 초목군생⁴⁴⁾ 비둘기는 봄을 만나 좋아하네
 불쌍하다 엄도만섭 다시환생⁴⁵⁾ 못하는가
 오천만년 지나간들 자기전에 잇을손가
 애고애고 불쌍해라 보고서와⁴⁶⁾ 어이할꼬
 잠은어이 아니오노⁴⁷⁾ 꿈에나마 만나보자
 부자간에⁴⁸⁾ 중한천륜⁴⁹⁾ 세상을 서로몰라
 갑신년⁵⁰⁾에 죽은너를 을유년⁵¹⁾을 다지내고
 병술년⁵²⁾ 삼월까지 날마다 바랄적에
 어린손자 등에업고 문에서서 바라나니⁵³⁾
 거리나서⁵⁴⁾ 바라다가 산에올라 바라다가
 오늘이나 편지올까 내일이나 편지올까
 좋은기별⁵⁵⁾ 바랐더니 참혹⁵⁶⁾한 너의소식

41) 탄식(歎息) : 한탄하여 한숨을 쉽.

42) 명문대가(名門大家) : 이름난 큰 집안.

43) 인도환생(人道還生) : 사람이 죽어 저승에 갔다가 이승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는 일.

44) 초목군생(草木群生) : 봄이 되어 초목이 싱싱하게 싹이 틈.

45) 환생(還生) : 죽은 사람이 다시 태어남.

46) 보고서와 : 보고 싶어서.

47) 아니오노 : 아니 오는가.

48) 부자간(父子間)에 : 부모 자식간에.

49) 중(重)한 천륜(天倫) : 부모와 자식 간에 하늘의 인연으로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혈연 관계.

50) 갑신년(甲申年) : 서기 1944년.

51) 을유년(乙酉年) : 서기 1945년.

52) 병술년(丙戌年) : 서기 1946년.

53) 바라나니 : 찾아올까 기다리니.

54) 거리나서 : 거리에 나가서.

55) 기별(奇別) : 다른 곳에 있는 사람에게 소식을 전함.

56) 참혹(慘酷) : 비참하고 끔찍함.

꿈이거든 어서깨고 참이거든 하양⁵⁷⁾가자
 애고답답 내일이야 말하자니 목이메고
 조문⁵⁸⁾을 짓자하니 눈물이 앞을막고
 자자⁵⁹⁾이 수묵⁶⁰⁾이요 구구⁶¹⁾이 설움이라
 같이간 동행⁶²⁾들은 부모처자⁶³⁾ 만나보고
 희희낙락⁶⁴⁾ 반기는데 너의권속⁶⁵⁾ 처자들은
 울음으로 벼슬삼고 한숨으로 세월보내
 꿈이라도 다시보면 세세원정⁶⁶⁾ 하오리라
 떠날때 했던부탁 오늘까지 축원⁶⁷⁾이되
 행축원⁶⁸⁾을 너무해서 너무잘된 탓이로다
 해방전⁶⁹⁾에 반혼⁷⁰⁾이나 반혼이나 하였으면
 꽃다운 너의영혼 위로⁷¹⁾할일 많건만은
 해방후에 반혼하니 허명무실⁷²⁾ 불쌍하다
 선산계하⁷³⁾ 안장⁷⁴⁾하고 이같이 위로한들

57) 하양(河陽)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58) 조문(弔文) : 죽은 사람의 생전의 공덕을 기리고 그의 명복을 비는 글.

59) 자자(字字)이 : 글자글자마다.

60) 수묵(水墨) : 빛이 옅은 먹물 또는 먹그림.

61) 구구(句句)이 : 구구절절(句句節節)하다.

62) 동행(同行) : 함께 부역(賦役)을 갔던 동료(同僚)

63) 부모처자(父母妻子) : 부모님과 아내 그리고 자식.

64) 희희낙락(喜喜樂樂) : 매우 기뻐하고 즐거워함.

65) 권속(眷屬) : ‘아내’의 낮춤말.

66) 세세원정(歲歲原情) : 여러 해를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 사정을 하소연함.

67) 축원(祝願) : 희망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마음속으로 원함.

68) 행축원(行祝願) : 행선축원(行禪祝願)과 같은 말로 부처에게 나라와 백성이 평안하기를 기원하고 구도와 중생 교화를 위하여 끝없이 정진할 것을 다짐하는 일.

69) 해방전(解放前)에 :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연합군에 패배를 선언한 날 이전에.

70) 반혼(返魂) : 죽은 사람을 화장하고 그 혼을 집으로 도로 불러들임.

71) 위로(慰勞) :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 주거나 슬픔을 달래 줌.

72) 허명무실(虛名無實) : 헛된 이름뿐이고 실속이 없음.

73) 선산계하 : 선산(先山) 아래.

74) 안장(安葬) : 편안하게 장사 지냄.

네가오니 울줄알며 네가가니 간줄아나
 육신⁷⁵⁾으로 갔던몸이 육골⁷⁶⁾이 웬일이며
 입신양명⁷⁷⁾ 하온후에 금의환향⁷⁸⁾ 몰랐더니
 옥합⁷⁹⁾속에 싸여오니 불쌍하고 가련⁸⁰⁾하다
 홍안소부⁸¹⁾ 어린손자 철천지 한이되어⁸²⁾
 날마다 아비찾아 목불인견⁸³⁾ 어이보소
 욕사욕사⁸⁴⁾ 분한마음 살자하니 속이아파
 아마도 헛말이지 너죽음 참말이나
 녹음방초⁸⁵⁾ 성한시에⁸⁶⁾ 어서어서 만나보자
 애고애고 하나님요 어이이리 무심한고
 나갔다가 집에오면 귀히길러 족하걸쳐⁸⁷⁾
 다시한번 못보고서 어디가서 홀로노노⁸⁸⁾
 이별이야 이별이야 계미년⁸⁹⁾ 생이별가
 병술년⁹⁰⁾에 영결⁹¹⁾하니 애고불쌍 어이할꼬

75) 육신(肉身) : 육체(肉體) 곧 살아 있는 몸.

76) 육골(肉骨) : 사람의 몸을 비유한 표현으로 여기서는 죽은 몸을 뜻함.

77) 입신양명(立身揚名) : 출세하여 이름을 세상에 떨침.

78) 금의환향(錦衣還鄉) : 비단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온다는 뜻으로, 출세를 하여 고향에 돌아가거나 돌아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79) 옥합(玉盒) : 뚜껑을 옥으로 만든 작은 그릇. 여기서는 유골함을 뜻함.

80) 가련(可憐) : 가엾고 불쌍함.

81) 홍안소부(紅顏少婦) : 얼굴이 아름다운 젊은 여인.

82) 철천지한(徹天之恨)이 되어 : 하늘에 사무치는 크나큰 원한(怨恨)이 되어.

83) 목불인견(目不忍見) : 눈앞에 벌어진 상황 따위를 눈뜨고는 차마 볼 수 없음.

84) 욕사욕사(欲死欲死) : 죽고 싶은 마음.

85) 녹음방초(綠陰芳草) : 푸르게 우거진 나무와 향기로운 풀이라는 뜻으로, 여름철의 자연경관을 이르는 말.

86) 성한시에 : 성(盛)한 때에. 곧 나무나 풀이 싱싱하게 우거질 때에.

87) 족하(足下)걸쳐 : 발 아래에 걸쳐.

88) 홀로노노 : 홀로 놀겠는가.

89) 계미년(癸未年) : 서기 1943년.

90) 병술년(丙戌年) : 서기 1946년.

91) 영결(永訣) :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서로 영원히 헤어짐.

옛날에 이르기를 인재명 호불피라⁹²⁾
 천추만대⁹³⁾ 지나간들 너의이름 잊을손가
 첩첩이⁹⁴⁾ 쌓인한을 어느곳에 호소할까
 전상⁹⁵⁾을 하였는가 병상을 ⁹⁶⁾하였는가
 부모처자 형제들이 물한번 못떠놓고
 돌시가 지나도록 타국에 굶어앉아
 동지장야⁹⁷⁾ 하지일⁹⁸⁾에 밴들오죽⁹⁹⁾ 고팠으며
 고국으로 오고시와¹⁰⁰⁾ 허허탄식¹⁰¹⁾ 많이했지
 세세히¹⁰²⁾ 생각하니 뼈가녹고 원통하다
 아비나이 육십이요 어미나이 육십오라
 이세상 살아와서 다시한번 만났으면
 삼사년 기른정이 부자자효¹⁰³⁾ 하올것을
 천지신명¹⁰⁴⁾도 무심¹⁰⁵⁾하고 귀신도 무심하다
 허다한인생 살아온데¹⁰⁶⁾ 구우일모¹⁰⁷⁾ 구한애를

92) 인재명호불피 : 인재명호재피(人在名虎在皮)를 잘못 쓴 것으로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는 뜻과 상통함.

93) 천추만대(千秋萬代) : 긴 세월과 끊임없이 이어지는 대라는 뜻으로, 후손 만대에 이르기까지의 긴 시간을 이르는 말.

94) 첩첩(疊疊)이 : 여러 겹으로 겹쳐 있는 모양.

95) 전사(戰死) : 전쟁터에서 죽음.

96) 병상(病死) : 병으로 죽음.

97) 동지장야(冬至長夜) : 동짓달 긴긴 밤.

98) 하지일(夏至日) : 낮의 길이가 가장 긴 날.

99) 밴들오죽 : 배가 오죽

100) 오고시와 : 오고 싶어.

101) 허허탄식(歔歔歎息) : 몹시 탄식함.

102) 세세히 : 매우 자세히.

103) 부자자효(父慈子孝) : 부모는 자녀에게 자애로워야 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효성스러워야 함을 이르는 말.

104) 천지신명(天地神明) : 천지의 조화를 주재하는 온갖 신령.

105) 무심(無心) : 감정이나 생각하는 마음이 없음.

106) 살아온데 : 살아왔는데.

107) 구우일모(九牛一毛) : 아홉 마리의 소 가운데 박힌 하나의 털이란 뜻으로, 매우 많은 것 가운데 극히 적은 수를 이르는 말.

참혹하게 버리는고 애고애고 불쌍해라
 하느님이 사람낼제 별로후박¹⁰⁸) 없건만은
 부모죄가 많았는가 저허물은 없건만은
 하나님요 하나님요 애고답답 하나님요
 남이라도 원통커든 하물며 부모처자
 일일평균¹⁰⁹) 십이시¹¹⁰)에 한시라도¹¹¹) 잇을손가
 고초¹¹²)같이 추운날에 드신방에¹¹³) 잠못자고
 불같이 더운날에 부모그늘 못피하고
 밤낮으로 행군¹¹⁴)이요 적군¹¹⁵)을 물리칠제
 괴로움 오죽하여 기한¹¹⁶)인들 오죽할까
 천자한권¹¹⁷) 못갈치고¹¹⁸) 지통성¹¹⁹)을 다알고
 남의앞에 밀진것을 한가지도 없건만은
 악마같은 요놈들아 남의자식 빼어서다가
 육신이나 보내주지 재봉지¹²⁰)가 원이요¹²¹)
 대동마을¹²²) 건설하고 무운장구¹²³) 한다더니

108) 후박(厚薄) : 후하게 구는 일과 박하게 구는 일.

109) 일일평균(一日平均) : 하루 평균.

110) 십이시(十二時) : 열두 시간.

111) 한시라도 : 잠깐 동안이라도.

112) 고초(苦楚) : 고난(苦難)과 같은 말로 괴로움과 어려움을 아울러 이르는 말.

113) 드신방에 : 방에 들어가서. 또는 따뜻한 방에.

114) 행군(行軍) : 군대가 대열을 지어 먼 거리를 이동하는 일.

115) 적군(敵軍) : 적의 군대나 군사.

116) 기한(飢寒) : 굶주리고 헐벗어 배고프고 추움.

117) 천자한권 : 『천자문(千字文)』 한 권을 말함.

118) 못갈치고 : 못가르치고.

119) 지통성 : 통성(通姓)은 통성명(通姓名)과 같은 말로, 여기서는 자기 이름은 쓸 수 있다는 뜻.

120) 재봉지 : 사람의 시신(屍身)을 화장(火葬)하고 남은 재를 담은 봉지를 뜻함.

121) 원이요 : 원망(怨望)이요. 못마땅하게 여기어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한다는 뜻.

122) 대동(大同)마을 : 온 세상이 번영하여 화평한 마을.

123) 무운장구(武運長久) :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운수가 매우 길로 오램.

일도에¹²⁴) 폭망¹²⁵)되어 나무에 원지¹²⁶)친놈
 천만년을 살아간들 무슨복을 받을소냐
 절치부심¹²⁷) 이내마음 너의간(肝)을 먹고싶다
 용맹¹²⁸)있는 미소군¹²⁹)이 삼년전에 나왔으면
 일조에¹³⁰) 처리하고 천하가 평화되어
 내자식도 남과같이 부모처자 만나볼걸
 애고답답 만섭이도 일곱달만 살았으면
 압록강에 배를배를타고 고국으로 돌아올걸
 부모죄가 많았든가 내집운수 불길¹³¹)턴가
 조문¹³²)이 시기¹³³)한가 천신¹³⁴)이 저어한가¹³⁵)
 수천명 군사중에 영소경에 한토막과
 금의환향¹³⁶) 바라면서 주야축원¹³⁷) 바랐더니
 이일이 되었으니 내두사¹³⁸)를 어이할꼬
 너간후 한달만에 순산¹³⁹)으로 생남¹⁴⁰)하여

124) 일도(一度)에 : 한번에.

125) 폭망(暴亡) : 갑자기 망함.

126) 원지(原紙) : 닥나무 껍질을 원료로 하여 만든 종이의 하나.

127) 절치부심(切齒腐心) : 몹시 분하여 이를 갈며 속을 썩임.

128) 용맹(勇猛) : 용감하고 사나움.

129) 미소군(美蘇軍) : 미국(美國)과 소련(蘇聯)의 군대.

130) 일조(一朝)에 : 하루 아침에. 갑작스럽도록 짧은 사이를 이르는 말.

131) 불길(不吉) : 운수가 좋지 아니하거나 일이 예사롭지 아니함.

132) 조문(寵門) : 조왕문(寵王門)을 줄여서 쓴 표현으로 부엌을 맡는 신. 늘 부엌에 있어 그 집안의 길흉화복을 관장함.

133) 시기(猜忌) : 남이 잘되는 것을 샘하여 미워함.

134) 천신(天神) : 하늘에 있다는 신 또는 하늘의 신령.

135) 저어한가 : 염려하거나 두려워하는가.

136) 금의환향(錦衣還鄉) : 비단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온다는 뜻으로, 출세를 하여 고향에 돌아가거나 돌아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37) 주야축원(晝夜祝願) : 밤낮을 가리지 않고 희망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마음 속으로 원함.

138) 내두사(來頭事) : 앞으로 다가올 일.

139) 순산(順産) : 산모가 아무 탈 없이 순조롭게 아이를 낳음.

140) 생남(生男) : 득남(得男)과 같은 말로 아들을 낳음.

죽기라고 이름짓고 편지한장 하였더니
 아들난줄 알았으면 편지도 보았는지
 전쟁에 정신빠져 집생각은 없었는가
 이내가슴 문은불을 그뉘라서 끈단말가
 곱게곱게 길러내어 손자하나 안아보고
 황천후토¹⁴¹⁾ 가신후에 손자너를 출생시켜
 남의칭찬¹⁴²⁾ 많이받고 만년영화¹⁴³⁾ 바랐더니
 이비참¹⁴⁴⁾을 당했으니 애고엄마 웬일이냐
 애고아비 웬일이요 셋째손자 만섭이를
 검무황천¹⁴⁵⁾ 만나거든 인도환생¹⁴⁶⁾ 시켰으면
 애고답답 내일이여 운수를 숙여수할꼬¹⁴⁷⁾
 한숨지어 바람되고 눈물지어 피가된다
 아서라 별수없다 이내마음 곱게먹고
 명대로¹⁴⁸⁾ 보존¹⁴⁹⁾타가 불쌍한 저모자¹⁵⁰⁾를
 아들이나 거두어서 연한명을¹⁵¹⁾ 살게하자
 어느친척 보존할까 남전북답¹⁵²⁾ 별로없고
 앞일을 생각하니 빠가늑고 살이탄다

141) 황천후토(皇天后土) : 하늘과 땅의 신.

142) 칭찬(稱讚) : 좋은 점이나 착하고 훌륭한 일을 높이 평가함.

143) 만년영화(晩年榮華) : 늙을 적에 몸이 귀하게 되어 이름이 세상에 빛남.

144) 비참(悲慘) : 더할 수 없이 슬프고 끔찍함.

145) 검무황천 : 검무는 악귀나 잡귀를 물리쳐주는 신장(神將)으로 검무황천은 저승 세계를 관장하는 신을 뜻함.

146) 인도환생(人道還生) : 사람이 죽어 저승에 갔다가 이승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는 일.

147) 숙여수(孰與誰)할꼬 : 누가 누구와 함께 할꼬.

148) 명(命)대로 : 목숨, 운명대로.

149) 보존(保存) : 잘 보호하고 간수하여 남김.

150) 모자(母子) : 어머니와 아들.

151) 연한명을 :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진 목숨을.

152) 남전북답(南田北畝) : 밭은 남쪽에 논은 북쪽에 있다는 뜻으로, 가지고 있는 논 밭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음을 이르는 말.

사지¹⁵³)보고 수족¹⁵⁴)보니 새록새록¹⁵⁵) 생각난다
 슬프다 세월이여 성화¹⁵⁶)같이 지나가고
 어린손자 장대¹⁵⁷)하면 이설움을 없애볼까
 너의동무¹⁵⁸) 볼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
 삼화¹⁵⁹)가 날때마다 한출침배¹⁶⁰) 땀이난다
 산으로 치치올라¹⁶¹) 천변¹⁶²)을 바라보고
 혼자탄식 하는말이 중지¹⁶³)가 어디매요
 산은몇산 넘어가며 강은몇강 건너가노
 악양루¹⁶⁴) 동정호¹⁶⁵)를 꿈같이 구경하고
 화북화남성¹⁶⁶)을 몇달이나 유했으며¹⁶⁷)
 연산팔월 찬바람에 구강풍¹⁶⁸) 소소¹⁶⁹)한테
 사진박아 보낼적에 몇일이나 놀았으며
 이리좋은 무한경¹⁷⁰)을 재미있게 못보고서
 동서남북 전쟁으로 분주불가¹⁷¹) 여가¹⁷²)없어

153) 사지(四肢) : 두 팔과 두 다리를 통틀어 이르는 말.

154) 수족(手足) : 손과 발. 또는 형제나 자식의 비유.

155) 새록새록 :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거듭하여 새롭게 생기는 모양.

156) 성화(星火) : 남에게 독촉하는 등 몹시 급하고 심함.

157) 장대(壯大) : 허우대가 크고 튼튼함.

158) 동무 : 친구. 늘 친하게 어울리는 사람.

159) 삼화(三火) : 불교용어로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세 가지 번뇌를 이르는 말. 번뇌가 타오르는 불처럼 심한 고통을 준다는 뜻.

160) 한출침배(汗出沾背) : 몹시 부끄럽거나 무서워서 흐르는 땀이 등을 적심.

161) 치치올라 : 빠르게 올라.

162) 천변(川邊) : 시냇가.

163) 중지(中地) : 중국 땅을 말함.

164) 악양루(岳陽樓) : 중국 호남성(湖南省) 악양에 있는 정자.

165) 동정호(洞庭湖) : 악양루와 같은 자리에 있는 호수 이름

166) 하북하남성(河北河南省) : 중국 북부의 하북성과 하남성을 말함.

167) 유(留)했으며 : 머물렀으며.

168) 구강풍(九降風) : 구월에 된바람이 한 달이 넘도록 부는 바람.

169) 소소(瀟瀟) : 비바람 등이 세참.

170) 무한경(無限景) : 더 말할 수 없이 좋은 경치.

171) 분주불가(奔走不暇) : 몹시 바빠서 겨를이 없음.

풍우¹⁷³)를 불피하고¹⁷⁴) 사지를 무릅쓰고¹⁷⁵)
 적진¹⁷⁶)을 함락¹⁷⁷)하고 의기양양¹⁷⁸) 행할적에
 사생¹⁷⁹)을 불과하고¹⁸⁰) 혈기지용¹⁸¹) 뿐이로다
 천운¹⁸²)인들 어찌하며 용맹인들 쓸데없다
 범같은¹⁸³) 미소군이 합진¹⁸⁴)하여 공격하니
 진시황¹⁸⁵)의 세력이며 초패왕¹⁸⁶)의 힘이로다
 한패공¹⁸⁷)을 못당하고 천하를 잃었거든
 자는범을¹⁸⁸) 코찔러서 당랑거철¹⁸⁹) 이상하여

172) 여가(餘暇) : 일이 없어 한가로운 시간.

173) 풍우(風雨) : 비바람.

174) 불피(不避)하고 : 피하지 않고.

175) 사지(死地)를 무릅쓰고 : 죽을 것을 각오하고.

176) 적진(敵陣) : 적이 모여 있는 진지나 진영.

177) 함락(陷落) : 적의 성, 요새, 진지 등을 공격하여 무너뜨림.

178) 의기양양(意氣揚揚) : 뜻한 바를 이루어 만족한 마음이 얼굴에 나타난 모양.

179) 사생(死生) : 삶과 죽음.

180) 불과(不過)하고 : 여기서는 가리지 않는다는 뜻.

181) 혈기지용(血氣之勇) : 혈기에 찬 기운으로 불끈 일어나는 용맹.

182) 천운(天運) : 하늘이 정한 운명.

183) 범같은 : 호랑이같은.

184) 합진(合戰) : 연합전(聯合戰)을 줄인 말로 미군과 소련군이 서로 힘을 합해 전쟁을 치름.

185) 진시황(秦始皇) : 시황제(始皇帝)라 하며 중국 진(秦)나라의 제1대 황제(BC.259~BC.210)를 말함. 기원전 221년에 중국을 통일하고 스스로 시황제라 칭하였다. 중앙 집권을 확립하고, 도량형·화폐의 통일, 만리장성의 증축, 아방궁의 축조, 분서갱유 따위로 위세를 떨쳤음.

186) 초패왕(楚霸王) : 중국 진(秦)나라 때 무장인 항우(項羽, BC.232-BC.202)를 달리 부르는 말. 그는 숙부 항량(項梁)과 함께 군사를 일으켜 유방(劉邦)과 협력하여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스스로 서초(西楚)의 패왕(霸王)이 되었다. 그 후 유방과 패권을 다투다가 해하(垓下)에서 포위되어 자살하였다고 전함.

187) 한패공(漢沛公) : 중국 한나라의 초대 황제인 유방(劉邦, BC.247~BC.195)을 말함. 진시황이 죽은 다음해 항우와 합세하여 진(秦)나라를 멸망시켰으며, 그 뒤 해하(垓下)의 싸움에서 항우를 대파하여 중국을 통일하였음.

188) 자는범을 : 자는 호랑이를.

189) 당랑거철(螳螂拒轍) : 제 역량을 생각하지 않고, 강한 상대나 되지 않을 일에 덤벼드는 무모한 행동거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중국 제나라 장공(莊公)이 사냥을 나가는데 사마귀가 앞발을 들고 수레바퀴를 멈추려 했다는 데서 유래함.

미소군에 달려드니 조족지혈¹⁹⁰) 이아닌가
 아무거나 생각하니 죽은것이 불쌍하다
 불쌍한 영상¹⁹¹)앞에 홀로앉아 체읍¹⁹²)하고
 지나간일 생각하니 새록새록 생각난다
 너의나이 아홉살날때 마누라는 열에하나
 둘째누이 아홉나고 셋째누이 여섯날째
 두누이 너를업고 셋째누이 뒤을따라
 원두밭¹⁹³)에 올라가면 달린족족 골라주고
 말헤프지 아니하고¹⁹⁴) 지순차순¹⁹⁵) 자라나서
 지남지북¹⁹⁶) 다니면서 지혼자¹⁹⁷) 공부하고
 부모앞에 더러나서¹⁹⁸) 담화¹⁹⁹)도 못해보고
 다정한 이야기를 부자간에 못해보고
 어여쁜 부부간에 살림도 못해보고
 조용히 서로안아 담화도 못해보고
 애고답답 내일이야 이생각 저생각을
 날이가고 달이가면 잊을까 하였더니
 불쌍한 너의생각 오매불망²⁰⁰) 못잊겠네
 가련하다 청춘고혼²⁰¹) 적막공산²⁰²) 홀로누워

190) 조족지혈(鳥足之血) : 새 발의 피라는 뜻으로, 매우 적은 분량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91) 영상(影像) : 영정(影幀)과 같은 말로 돌아가신 이의 그림이나 사진.

192) 체읍(涕泣) :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

193) 원두(園頭)밭 : 오이, 참외, 수박, 호박 등을 심은 밭.

194) 말헤프지 아니하고 :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195) 지순차순 : 마음이 더없이 온순하고 어질.

196) 지남지북(之南之北) : 남쪽으로도 가고 북쪽으로도 감.

197) 지혼자 : 자기 혼자.

198) 더러나서 : 더러 나서서. 가꿈 함께.

199) 담화(談話) :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음.

200) 오매불망(寤寐不忘) : 자나 깨나 잊지 못함.

201) 청춘고혼(靑春孤魂) : 젊은 나이에 죽은 외로운 넋.

202) 적막공산(寂寞空山) : 고요하고 쓸쓸한 깊은 산중.

이세상 지낸역사 누굴더러 설하할꼬²⁰³⁾
 귀촉도²⁰⁴⁾ 부르기를 벗절삼아 울어보니
 부르기도 너와같다 타국에 죽은혼이
 고국에 돌아와서 울때마다 피을토해
 제철분분²⁰⁵⁾ 두견화²⁰⁶⁾는 꽃가지에 부여들어²⁰⁷⁾
 해마다 꽃이피면 장부심장²⁰⁸⁾ 다녹는다
 춘초난연²⁰⁹⁾ 연하되 왕손은 기불기라²¹⁰⁾
 공자왕손 사대부요 한번아차 죽어지면
 죽은 몸만 불쌍하지 움이돈나 싹이돈나
 초한제²¹¹⁾에 슬픈사직²¹²⁾ 옛글에만 보았더니
 네게와서 미칠줄을 꿈에도 생각없어
 말라말라 울지마라 물애기²¹³⁾야 울지말라
 네울음을 들을적에 나의심사 생각하니
 심이여회²¹⁴⁾ 맘이타서 좌불안석²¹⁵⁾ 못견딜제
 늙고병든 너의어미 눈물로 세월보내
 천만가지 슬픈사적 옥황전에²¹⁶⁾ 호소하고

203) 설하할꼬 : 말할꼬.

204) 귀촉도(歸蜀道) : 두견이.

205) 제철분분(紛紛) : 제 철에 여럿이 한데 뒤섞여 어수선했.

206) 두견화(杜鵑花) : 진달래꽃.

207) 부여들어 : 뛰어들어.

208) 장부심장 : 장부(丈夫), 곧 사나이의 심장.

209) 춘초난연(春草爛然) : 봄풀이 눈부시게 아름다움.

210) 왕손(王孫)은 기불기(起不起)라 : 왕손이 일어나고자 하나 일어서지 못하노라.

211) 초한제(楚漢帝) : 초나라와 한나라의 왕조.

212) 사직(社稷) : 나라 또는 조정을 이르는 말.

213) 물애기 : '젓먹이'를 잘못 쓴 표현.

214) 심이여회(如灰) : 마음 속이 타버린 재와 같아서.

215) 좌불안석(坐不安席) : 앉아도 자리가 편안하지 않다는 뜻으로, 마음이 불안하거나 걱정스러워서 한군데에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안절부절못하는 모양을 이르는 말.

216) 옥황전에 : 옥황상제 앞에.

원통한 원정기억²¹⁷⁾ 지부황천²¹⁸⁾ 호소할까
 이리생각 저리생각 만가지로 생각해서
 한가지도 못미치고 간장마다²¹⁹⁾ 다독는다
 애고답답 설움이야 애고답답 만섭이야
 개가짚기에 내닫으니²²⁰⁾ 만섭이 오는구나
 마당을 나서보니 만섭이는 아니오고
 창망²²¹⁾의 하늘에는 별과달 뿐이로다
 달아달아 밝은달아 화남성²²²⁾ 비친달아
 우리만섭 찾아보고 고국으로 보내다오
 양복장이 어른하면²²³⁾ 저기아마 만섭인지
 두눈이 뚫어져도 한번도 안맞추니
 금년삼월 온다던지 명년삼월 온다던가
 물이깊어 못오는가 산이높아 못오는가
 육로만리 수로만리 중지²²⁴⁾가 몇만린고
 밀지²²⁵⁾에 무소식은 영결밖에 또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는필경²²⁶⁾ 살아오리
 부모형제 처자들도 남에게 적악²²⁷⁾없고
 어여쁜 너의마음 적악한일 없건마는
 일구월심²²⁸⁾ 돌아옴이 죽을리가 만무하다²²⁹⁾

217) 원정(冤情)기억 : 억울하게 죽어 고통스러운 기억.

218) 지부황천(地府黃泉) : 지부와 황천은 둘 다 '저승'을 말함.

219) 간장마다 : 간과 창자마다. 곧 '애'나 '마음'을 비유한 말.

220) 내닫으니 : 갑자기 밖이나 앞으로 힘차게 뛰어나감.

221) 창망(蒼茫) : 넓고 멀어서 아득함.

222) 화남성(華南省) : 중국의 화남성.

223) 어른하면 : 얼핏 한 번 나타났다가 없어지면.

224) 중지(中地) : 중국 땅을 말함.

225) 밀지(密旨) : 남몰래 갖는 생각.

226) 필경(畢竟) : 끝에 가서는.

227) 적악(積惡) : 남에게 악한 짓을 많이 함.

228) 일구월심(日久月深) : 날이 오래고 달이 깊어 간다는 뜻으로, 세월이 흐를수록

영천²³⁰)사는 제군²³¹)들이 너의형편 안다하니
 그사람이 오게되면 너의사직 자시알리²³²)
 언제나 올려는지 마음이 조조하다
 아무리 잊으려도 또한생각 절로난다
 거년²³³)정월 돌아들어 세배하는 청년들과
 망월하는²³⁴) 소년들이 삼삼오오²³⁵) 짝을지어
 오락가락 들고난데²³⁶) 너하나가 아니오고
 이월이라 한식일²³⁷)에 원산에 봄이드니
 개자추²³⁸)에 충혼비²³⁹)니 국과국망²⁴⁰) 싫어하여
 벼슬을 마다하고 원산에 깊이숨어
 아무리 간청²⁴¹)해도 절개²⁴²)를 안굽히니

더함을 이르는 말.

229) 만무하다 : 만 가지에도 없다는 뜻으로 절대로 없음.

230) 영천(永川) : 경상북도 영천시.

231) 제군(諸君) : 여러 명의 아랫사람을 문어적으로 조금 높여 이르는 이인칭 대명사.

232) 자시알리 : 자세히 알게 되리.

233) 거년(去年) : 작년. 지난 해.

234) 망월(望月)하는 : 달을 바라보는.

235) 삼삼오오(三三五五) : 서너 사람 또는 대여섯 사람이 떼를 지어 다니거나 무슨 일을 함.

236) 들고난데 : 들고 나는데.

237) 한식일(寒食日) : 우리나라 명절의 하나. 동지에서 105일째 되는 날로서 4월 5일이나 6일쯤이 되며, 민간에서는 조상의 산소를 찾아 제사를 지내고 사초(莎草)하는 등 묘를 돌아봄.

238) 개자추(介子推) : 중국 춘추 시대의 은인(隱人)으로 진(晉)나라 문공(文公)과 19년 동안 함께 망명 생활을 하며 고생하였으나, 문공이 귀국하여 왕이 된 후 자신을 멀리하자 면산(綿山)에 들어가 숨어 살았으며, 이후 문공이 개자추를 잊은 잘못을 뉘우치고 그를 나오도록 하기 위하여 그 산에 불을 질렀으나, 어머니를 업고 나무를 안고 타 죽었다고 함.

239) 충혼비(忠魂碑) :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사람의 넋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비.

240) 국과국망(國破國亡) : 나라가 흩어져서 망함.

241) 간청(懇請) : 간절히 청함.

242) 절개(節概) : 신념, 신의 따위를 굽히지 아니하고 굳게 지키는 꺾끗한 태도.

산에다 불지르니 그불에 타서죽어
 한식이라 돌아오면 불안때고 찬밥먹고
 삼월이라 삼진날²⁴³에 천리강산 저제비는
 옛주인을 다시찾아 매년마다²⁴⁴ 오건만은
 불쌍하다 초로인생²⁴⁵ 다시올줄 왜모르노
 사월이라 초과일²⁴⁶은 석가여래²⁴⁷ 생신이라
 집집마다 등불달고 불전²⁴⁸다시 보고지고
 오월이라 단오절은 청춘가절²⁴⁹ 이아닌가
 녹의홍상²⁵⁰ 미인들은 이팔청춘 남자들은
 그네줄에 올라앉아 반선²⁵¹이를 즐기는데
 우리집 만섭이는 그도한번 못해봤지
 유월이라 유두날²⁵²에 대상왕제 신곡자시
 억조창생²⁵³ 생각하고 중신²⁵⁴모아 치제²⁵⁵한다
 칠월칠석 추운날에 백중²⁵⁶놀음 좋을시고

243) 삼진날 : 음력 삼월 초사흘날.

244) 매년마다 : 해마다.

245) 초로인생(草露人生) : 풀잎에 맺힌 이슬과 같은 인생이라는 뜻으로, 허무하고 덧없는 인생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46) 초과일(初八日) : 음력 4월 8일로 석가모니의 탄생일

247) 석가여래(釋迦如來) : 석가모니를 신성하게 부르는 말.

248) 불전(佛典) : 불경(佛經)과 같은 말로 불교의 교리를 밝혀 놓은 전적(典籍)을 통틀어 이르는 말.

249) 청춘가절(靑春佳節) : 십 대 후반에서 이십 대에 걸치는 인생의 젊은 나이 때에 좋은 시절이나 계절.

250) 녹의홍상(綠衣紅裳) : 연두저고리에 다홍치마라는 뜻으로, 젊은 여자의 고운 옷차림을 이르는 말.

251) 반선(盤旋) : 길이나 강 따위가 구불구불하게 빙빙 돌아 나 있는 것으로 물놀이를 말함.

252) 유두날(流頭日) : 우리나라 명절의 하나로 음력 유월 보름날. 신라 때부터 유래하였으며, 나쁜 일을 떨어 버리기 위하여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는 풍속이 있음.

253) 억조창생(億兆蒼生) : 수많은 백성.

254) 중신(衆臣) : 여러 신하.

255) 치제(致祭) : 임금이 제물과 제문을 보내어 죽은 신하를 제사 지내던 일.

견우직녀²⁵⁷) 거동²⁵⁸)보소 쌍부채를 열어놓고
 구만장천²⁵⁹) 은하수²⁶⁰)에 오작불러 다리놓아
 일년일차²⁶¹) 만나보니 두번한탄²⁶²) 하지말라
 인생은 죽어지면 다시한번 만날소냐
 중추팔월²⁶³) 돌아들어 광명²⁶⁴)할손 저달빛은
 만리타국 비치건만 이내몸은 어찌하여
 한입골수²⁶⁵) 중지땅을²⁶⁶) 오도가도 못하는고
 구월구일 돌아들어 동인에²⁶⁷) 열린국화
 상긋상긋 웃는모양 우리만섭 태도²⁶⁸)로다
 시월이라 돌아들어 선산요사²⁶⁹) 치르라고
 노소함께²⁷⁰) 다모이는데 또하나이²⁷¹) 없었구나

256) 백중(百中) : 음력 칠월 보름으로 백중절(百中節). 승려들이 재(齋)를 설(設)하여 부처를 공양하는 날로. 불교가 융성했던 신라나 고려 때에는 이날 일반인까지 참석하여 우란분회를 열었으나 조선 시대 이후로 사찰에서만 이루어졌음. 근래 민간에서는 여러 과실과 음식을 마련함.

257) 견우직녀(牽牛織女) : 칠월 칠석에 견우와 직녀가 1년에 한 번 만나게 된다는 설화로 칠월 칠석이 되면 견우성과 직녀성이 가까워지는 자연현상에서 비롯된 것임. 옥황상제의 손녀인 직녀와 목동인 견우가 혼인을 했는데, 자신들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그 벌로 옥황상제는 두 사람을 1년에 한 번만 만날 수 있게 하였다. 그런데 은하수가 그들을 가로막아 만날 수가 없게 되자 수많은 까마귀와 까치가 머리를 맞대어 다리를 놓아 주었다. 그 다리를 ‘오작교(烏鵲橋)’라 하며, 이날 비가 내리는데 이 비를 칠석우(七夕雨)라 하며 견우와 직녀가 기뻐서 흘리는 눈물이라 함.

258) 거동(擧動) : 몸을 움직이는 행동이나 태도.

259) 구만장천(九萬長天) : 구만리장천(九萬里長天)과 같은 말로 아득히 높고 먼 하늘.

260) 은하수(銀河水) : ‘은하’를 강(江)에 비유하여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261) 일년일차 : 일년에 한 차례.

262) 한탄(恨歎) : 원통하거나 뉘우치는 일이 있을 때 한숨을 쉬며 탄식함.

263) 중추팔월(仲秋八月) : 가을이 한창인 음력 팔월을 달리 이르는 말.

264) 광명(光明) : 밝고 환함. 밝은 미래나 희망을 상징하는 밝고 환한 빛.

265) 한입골수(恨入骨髓) : 원한이 뼈에 사무침.

266) 중지땅을 : 중국땅을.

267) 동인(洞隣)에 : 동네 가까이.

268) 태도(態度) : 몸의 동작이나 몸을 거두는 모양새.

269) 선산요사(先山要事) : 조상의 모시는 일과 관련하여 중요한 일.

십일월 돌아들어 곳곳마다 동지²⁷²⁾치자
 충신열사²⁷³⁾ 위로커든 너의영혼 불쌍하다
 십이월 돌아들어 낙목한천²⁷⁴⁾ 찬바람에
 상설²⁷⁵⁾같이 독한충절²⁷⁶⁾ 천상천하²⁷⁷⁾ 왕래²⁷⁸⁾할때
 너도같이 동찰²⁷⁹⁾하면 산후신위²⁸⁰⁾ 하오리라
 금년정월 돌아들어 이삼월 바랄적에
 삼월이 다가니 사월에 올려는가
 날마다 바랄적에 그간장²⁸¹⁾ 어떠하며
 애고답답 이어하노²⁸²⁾ 이럴을²⁸³⁾ 알았으면
 갑신²⁸⁴⁾ 정월달에 너아들 낳다고서
 이름지어 편지할제 불쌍한 그의모자
 편지만 하지말고 저의모자 사진박아²⁸⁵⁾

270) 노소(老小)함께 : 어린 아이부터 늙은이까지.

271) 또하나이 : 또 한 사람이.

272) 동지(冬至) : 이십사절기의 하나. 대설(大雪)과 소한(小寒) 사이에 들며 태양이 동지점을 통과하는 때인 12월 22일이나 23일경이다. 북반구에서는 일 년 중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길며, 이날 음기가 극성한 가운데 양기가 새로 생겨나는 때이므로 일 년의 시작으로 간주한다. 이날 각 가정에서는 팔죽을 쑤어 먹으며 관상감에서는 달력을 만들어 벼슬아치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함.

273) 충신열사 : 충성을 다하는 신하와 절개와 신의를 지키는 사람을 아울러 이르는 말.

274) 낙목한천(落木寒天) : 나뭇잎이 다 떨어진 겨울의 춥고 쓸쓸한 풍경.

275) 상설(霜雪) : 눈과 서리를 아울러 이르는 말로 눈서리라고도 함.

276) 충절(忠節) : 충성스러운 절개.

277) 천상천하(天上天下) : 하늘 위와 하늘 아래라는 뜻으로, 온 세상을 이르는 말.

278) 왕래(往來) : 가고 오고 함.

279) 동찰(動察) : 움직여 살핌.

280) 산후신위(山後神位) : 고인(故人)을 장사(葬事)를 지낸 후 영혼이 의지할 자리인 신주(神主)를 모셔두는 자리를 말함.

281) 간장 : 간과 창자로 '애'나 '마음'에 대한 비유.

282) 이어하노 : 이 어떻게 하노.

283) 이럴을 : 이럴 줄을.

284) 갑신(甲申) : 서기 1944년.

285) 사진박아 : 사진찍어.

사진박아 보냈다면 부자상봉²⁸⁶ 하여보지
 부자간에 중한천륜²⁸⁷ 얼굴도 못보고서
 이세상을 떠났다면 너의한이 무궁²⁸⁸했지
 선미견 후실기²⁸⁹ 이과같이 원²⁹⁰이던들
 어느천년 다시만나 이소원을 풀어볼꼬
 아가아가 우리주기 불쌍하다 우리아가
 세살먹은 너의몸이 아비구경 못해보고
 귀동이라 천동이라 혈혈단신²⁹¹ 불쌍하다
 해업고서 가는세월 아무커나²⁹² 자라나서
 열자식 부럽잖니²⁹³ 이원을 풀어다오
 초생달 반달굴듯 이슬아침²⁹⁴ 오이굴듯
 사광²⁹⁵에 초명²⁹⁶으로 이태백²⁹⁷ 문장²⁹⁸겸해
 너의아비 무덤앞에 만대황황²⁹⁹ 빛이나게
 불쌍한 그영혼이 흠향감동³⁰⁰ 하오리라

286) 부자상봉(父子相逢) :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만남.

287) 중(重)한 천륜(天倫) : 부모와 자식 간에 하늘의 인연으로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혈연 관계.

288) 무궁(無窮) : 공간이나 시간 따위가 끝이 없음.

289) 선미견(先未見) 후실기(後失機)라 : 먼저 만나지 못하고 나중에 기회를 잃는지라.

290) 원(怨) : 원망(怨望).

291) 혈혈단신(孑子單身) : 의지할 곳이 없는 외로운 홀몸.

292) 아무커나 : 아무렇게나.

293) 부럽잖니 : 부럽지 않으니.

294) 이슬아침 : 이슬이 채 마르지 않은 이른 아침.

295) 사광(斜光) : 비스듬히 비추는 빛.

296) 초명(初明) : 이른 저녁의 빛.

297) 이태백(李太白) : 중국 당나라의 시인인 이백(李白, 701~762)을 말함. 젊어서 여러 나라에 만유(漫遊)하고, 뒤에 출사(出仕)하였으나 안사의 난으로 유배되는 등 불우한 만년을 보냈음. 칠언절구(七言絕句)에 특히 뛰어났으며, 이별과 자연을 주제로 한 작품을 많이 남겼음. 시성(詩聖) 두보(杜甫)에 대하여 시선(詩仙)이라 부른다.

298) 문장(文章) : 문장가(文章家)와 같은 말로 글을 잘 짓는 사람.

299) 만대황황(萬代煌煌) : 영원토록 밝게 빛남.

간도³⁰¹)하고 나진³⁰²)갈때 별생각이 다나온다
 철가난³⁰³)이 자심³⁰⁴)하니 주린배를³⁰⁵) 채우려고
 간다온다 말도없이 돈한푼 안가지고
 남양³⁰⁶)땅을 들어가서 돈이없어 밥못먹고
 천행으로 자주만나 벤토³⁰⁷)하나 사주기에
 반가이 요기³⁰⁸)하고 나진으로 걸어가서
 별별고생 다해가며 돈도한푼 못벌고서
 일년만에 돌아와서 그런설화³⁰⁹) 하올적에
 안자던³¹⁰) 부모맘과 제마음은 오죽할까
 자녀간³¹¹) 칠남매를 귀한거동³¹²) 모르고서
 호의호식³¹³) 못시키고 그와같이 지낸일을
 이제와서 생각하니 백골³¹⁴)이 진토³¹⁵)된들
 잇을가망³¹⁶) 많이없네 뼈가녹고 속이탄다
 애고답답 살림살이 남봉남식³¹⁷) 안했건만

300) 흠향감동(歆響感動) : 신명(神明)이 제물을 감동있게 받아서 먹는 것을 말함.

301) 간도(間島) : 두만강(豆滿江)과 마주한 한반도 북부 지역.

302) 나진(羅津) : 함경북도 북쪽에 있는 항구도시.

303) 철가난 : 가난한 계절.

304) 자심(滋甚) : 더욱 심함.

305) 주린배를 : 배고픈 배를.

306) 남양(南陽) : 두만강변에 있는 북한의 지명으로 맞은 편에 중국 도문(圖們)이 있음.

307) 벤토 : 도시락을 뜻하는 일본 낱말.

308) 요기(療飢) : 시장기를 겨우 면할 정도로 조금 먹음.

309) 설화(說話) : 이야기.

310) 안자던 : 밤잠 못주무시던.

311) 자녀간(子女間) : 자녀 사이.

312) 귀한거동 : 귀한 것을. 또는 귀한 움직임.

313) 호의호식(好衣好食) :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음.

314) 백골(白骨) : 죽은 사람의 몸이 썩고 남은 뼈.

315) 진토(塵土) : 티끌과 흙을 통틀어 이르는 말.

316) 가망(可望) : 될 만하거나 가능성이 있는 희망.

317) 남봉남식(濫捧濫食) : 정해진 수량보다 더 많이 받아들이거나, 가리지 않고 함부로 먹음.

귀한자식 천기³¹⁸) 돌려 이지경을 당했도다
 아버를 잘못 만나 고생으로 낙을삼아
 이십오년 지낸일을 낱낱이 생각하니
 환난세계³¹⁹) 태어나서 구천날³²⁰)을 못살았네
 걱정없이 지낸날이 십년도 아니되어
 무정한 부모형제 다시한번 아니보고
 새세상에 태어나서 공자왕손³²¹) 되려는가
 부귀공명³²²) 하려는가 왕후장상³²³) 되려는가
 정국공신³²⁴) 영혼들이 어느곳에 모여앉아
 천운을 탄식하고 세월을 보내는고
 오호애재³²⁵) 통곡이요 섭귀참이 아깝도다
 수만명 군사들이 행군하여 나을적에
 기치창검³²⁶) 들여매고 행진곡³²⁷)을 노래한다
 목석간장³²⁸) 아니거든 뉘아니 눈물날까
 슬프다 우리부모 십삭³²⁹)만에 나를 낳아
 울지말라 달래면서 안아주고 업어주고
 목마를때 젖을주고 배고플때 밥을주며
 곱게곱게 기를적에 지원병³³⁰)될줄 알았으며

318) 천기(天機) : 하늘의 기밀 또는 조화(造化)의 신비.

319) 환난세계(患難世界) : 근심과 재앙이 가득한 세상.

320) 구천(九千)날 : 25여 년의 시간을 말함.

321) 공자왕손(公子王孫) : 공(公)과 같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자손과 왕의 자손이라는 뜻으로, 지체 높은 집안의 자손을 이르는 말.

322) 부귀공명(富貴功名) :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으며 공을 세워 이름을 떨침.

323) 왕후장상(王侯將相) : 제왕·제후·장수·재상을 아울러 이르는 말.

324) 정국공신(靖國功臣) : 어지럽던 나라를 태평하게 만든 신하를 말함.

325) 오호애재(嗚呼哀哉) : ‘아, 슬프도다’라는 뜻으로, 슬플 때나 탄식할 때 하는 말.

326) 기치창검(旗幟槍劍) : 군대에서 쓰던 깃발, 창, 칼 따위를 통틀어 이르던 말.

327) 행진곡(行進曲) : 행진할 때에 쓰는 반주용 음악.

328) 목석간장(木石肝腸) : 나무나 돌처럼 아무런 감정도 없는 마음씨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329) 십삭(十朔) : 열 달.

이십여세 청춘으로 왜병정³³¹⁾ 될줄알까
 아참³³²⁾엄마 어이할고 에해류낙 못로다
 논둑밭둑아 날살리라 유성탄알³³³⁾ 비오듯한다
 쳐다보니 비행기요 내다보니 군함³³⁴⁾이라
 아참엄마 날보내고 문에서서 기다리지
 우리도언제 고향가서 부모앞에 놀아볼꼬
 아참엄마 수리술엄마 이루하 낙루³³⁵⁾로다
 피가흘러 내가되고³³⁶⁾ 군사죽어 산이로다
 임진군안 뜯기러기 만호장천³³⁷⁾ 높이떠서
 청량포로 날아들어 수백리 평사장³³⁸⁾에
 첩첩이 찢었으니 평사낙안³³⁹⁾ 이야닌가
 이리좋은 무한경³⁴⁰⁾을 부모앞에 풀어보자
 이럴씨구 저럴씨구³⁴¹⁾ 열심히 승전³⁴²⁾하고
 수삼년 그린³⁴³⁾부모 웃음으로 인사하고
 충으로 영접³⁴⁴⁾하자 지화자³⁴⁵⁾야 우리부모
 이렇듯이 노래하고 천명만기³⁴⁶⁾ 기다릴제

330) 지원병(志願兵) : 스스로 입대를 원한 병사.

331) 왜병정(倭兵丁) : 일본 군사.

332) 아참 : 감탄사.

333) 유성탄(流星彈)알 : 작은 총알.

334) 군함(軍艦) : 전투에 참여하는 배.

335) 낙루(落淚) : 눈물을 흘림.

336) 내가되고 : 냇물이 되고.

337) 만호장천(滿湖長天) : 넓은 호수와 드높은 하늘.

338) 평사장(平沙場) : 모래가 덮인 개펄인 모래밭.

339) 평사낙안(平沙落雁) : 모래밭에 날아와 앉은 기러기.

340) 무한경(無限景) : 더 말할 수 없이 좋은 경치.

341) 이럴씨구 저럴씨구 : 흥겨울 때에 장단을 맞추며 변화 있게 내는 소리. 얼씨구절씨구

342) 승전(勝戰) : 전쟁에서 이김.

343) 기린 : 기다린. 그리운.

344) 영접(迎接) : 손님을 맞아서 대접하는 일.

345) 지화자 : 흥을 돋우기 위하여 노래나 춤의 곡조에 맞추어 내는 소리.

혈통에 나는눈물 쓸개에 나는눈물
 고국을 생각하여 몇번이나 울었을까
 행진 수심곡³⁴⁷)을 몇이나 불렀을까
 자식이 애물³⁴⁸)이다 별생각이 다나온다
 복숭살구³⁴⁹) 다익어도 그하나도 맛못보고
 육칠월 외가나면³⁵⁰) 너생각 하느라고
 먹기싫다 팽개치고 맛있게 못먹었네
 작년칠월 외밭³⁵¹)놀때 수박타다 감춰놓고
 너하나 줄려고서 인제는 수일³⁵²)오리
 날마다 바랐다가 그수박이 다상해도
 소식이 돈절³⁵³)하네 신곡³⁵⁴)을 잡아베어
 햇쌀밥을 먹을적에 남모르게 눈물닦고
 사명절³⁵⁵) 제사마다 그렇게도 바랐더니
 인간에 못할일은 나간자식 바릴길세³⁵⁶)
 오는사람 가는사람 허술히³⁵⁷) 아니보고
 편지만 한장와도 만섭이 소식인가
 남의아들 왔다하면 거기가서 물어볼까
 생각사로 못잊어서 일각삼추³⁵⁸) 바랐더니

346) 천병만기(千兵萬騎) : 수많은 군사와 말.

347) 행진수심곡(行進愁心曲) : 군대에서 행진하면서 고향과 부모형제를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는 노래.

348) 애물 : 몹시 애를 태우거나 성가시게 구는 물건이나 사람.

349) 복숭살구 : 과일인 복숭아와 살구.

350) 외가나면 : 외가(外家)에 가면.

351) 외밭 : 오이나 참외를 심은 밭.

352) 수일(誰日) : 어느 때에.

353) 돈절(頓絕) : 편지나 소식 따위가 딱 끊어짐.

354) 신곡(新穀) : 그해에 새로 난 곡식인 햇곡식.

355) 사명절(四名節) : 사대명절로, 설날, 한식, 단오, 추석을 말함.

356) 바릴길세 : 바라는 길이네.

357) 허술히 : 치밀하지 못하고 엉성하여 빈틈이 있음.

358) 일각삼추(一刻三秋) : 일각이 삼년과 같다는 뜻으로, 몹시 기다려지거나 몹시 지

허망한일 생각하니 정신이 혼미³⁵⁹)하여
 만가지가 뜻이없고 백개가 모책³⁶⁰)이라
 시시³⁶¹) 생각날제 네무덤 나가보니
 금잔디³⁶²)가 포근포근³⁶³) 아비심장 다녹은다
 일편청산³⁶⁴) 고요한데 만고원혼³⁶⁵) 불쌍하다
 일성창졸³⁶⁶) 슬피우고 나는간다 일어서서
 도답무삼 홀로누워 아무말도 없이서서
 참혹한 너의일신³⁶⁷) 야속한것 죽음일세
 한걸음에 돌아보고 두걸음에 돌아보니
 눈물이 앞을막아 그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다시닦고 좌우를 살펴보니
 얼굴도 안보이고 음성도 안들리어
 집으로 돌아와서 네방에 봐도없고
 꽃다운 영상위에 너의사진 자시보니³⁶⁸)
 두눈이 캄캄하여 말뭏하고 물러나와
 불쌍한 너의처자 서로서로 위로하고
 이날저날 지내하니³⁶⁹) 아무쪼록 혼이라도
 극락세계³⁷⁰) 돌아가서 여한³⁷¹)없이 잘지내라

루한 느낌을 이르는 말.

359) 혼미(昏迷) : 의식이 흐림.

360) 모책(謀策) : 어떤 일을 처리하거나 모면할 꾀를 세움.

361) 시시(時時) : 때때로.

362) 금잔디 : 잡풀이 없이 탐스럽게 자란 잔디.

363) 포근포근 : 도톰한 물건이나 자리 따위가 매우 보드랍고 따듯한 느낌.

364) 일편청산(一片靑山) : 나지막하고 풀과 나무가 무성한 푸른 산.

365) 만고원혼(萬古冤魂) :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분하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넋

366) 일성창졸(日星倉卒) : 해와 별이 매우 급작스럽게 변함. 곧 빠른 시간의 비유.

367) 일신(一身) : 자기 한 몸.

368) 자시보니 : 자세히 보니.

369) 지내하니 : 지내고 보니.

370) 극락세계(極樂世界) : 불교용어로 아미타불이 살고 있는 정토(淨土)로, 괴로움이 없으며, 지극히 안락하고 자유로운 세상. 인간 세계에서 서쪽으로 10만억 불토(佛

참혹하다 너의혼을 한잔술로 위로하니
 혼이라도 너와나와 녀이라도 나오너라
 천리강남³⁷²⁾ 저제비는 옛주인 다시찾고
 만리전쟁³⁷³⁾ 갔던군자³⁷⁴⁾ 제부모를 다찾는데
 우리집 만섭이는 아버를 왜안찾나
 부자형제 비하건대 다르날까³⁷⁵⁾ 일반일세
 팔하나를 잃었으니 왼팔로 어이하며
 아무리 어색한들 다시잇기 어렵던가
 사후³⁷⁶⁾에 공명부귀³⁷⁷⁾ 불리생전³⁷⁸⁾ 일배수³⁷⁹⁾라
 너는어찌 몰랐느냐 아이아이 불쌍하다
 어여쁜 너의가족 상식상³⁸⁰⁾을 벌여놓고
 문밖에 나을적에 눈물을 음무어다³⁸¹⁾
 살아서 그밥상을 먹은것을 보았으면
 웃음으로 영접하지 눈물로 드릴소냐
 아무리 혼이라도 부부간에 여한없이
 집으로 혼미하고 내소리를 감동하라
 욱시욕시 분한마음 눈물섞어 원정³⁸²⁾지어
 호소할곳 전혀없어 영상³⁸³⁾위에 걸어놓고

土)를 지난 곳에 있음.

371) 여한(餘恨) : 풀지 못하고 남은 원한.

372) 천리강남(千里江南) : 천리만큼이나 멀리 떨어진 강남땅.

373) 만리전쟁(萬里戰爭) : 만리 떨어진 곳에서 벌어진 전쟁.

374) 군자(軍子) : 군인(軍人)과 같은 말.

375) 다르날까 : 다르기 할까.

376) 사후(死後) : 죽은 뒤에.

377) 공명부귀(功名富貴) :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으며 공을 세워 이름을 떨침.

378) 생전(生前) : 살아있는 동안.

379) 일배수(一杯水) : 한 잔의 물이라는 뜻으로, 적은 양의 물을 이르는 말.

380) 상식상(上食床) : 상가(喪家)에서 아침저녁으로 켜연 앞에 올리는 음식.

381) 음무어다 : 흘리도다.

382) 원정(原情) : 사정을 하소연함.

383) 영상(影像) : 고인(故人)의 사진이나 그림.

이와같이 애통³⁸⁴하리 혼신³⁸⁵이 명백하면
 머리위에 등등쳐서 네설움을 내알리라
 한두달 지나가면 잊을까 하였더니
 날마다 설운회포³⁸⁶ 봄풀같이 새로난다
 불쌍하다 우리수기 일취월장³⁸⁷ 자라나서
 불철주야³⁸⁸ 공부하여 아비사적³⁸⁹ 둘러봐라
 중지³⁹⁰나 화남성에 너의아비 원사³⁹¹로다
 살부지수³⁹² 갓자하니 호천망극³⁹³ 가이없다³⁹⁴
 아비생각 날때마다 사진보고 수적³⁹⁵봐라
 불쌍한 원정서³⁹⁶요 이대강³⁹⁷ 기록하니
 이원수³⁹⁸를 잊지말고 장래토록³⁹⁹ 전하여라
 가슴이 답답하고 정신이 압삽하여⁴⁰⁰
 신중⁴⁰¹에 병이되니 눈앞에 어리기로

384) 애통(哀痛) : 슬퍼하고 가슴 아파함.

385) 혼신(魂神) : 영혼과 정신을 아울러 이르는 말.

386) 회포(懷抱) :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나 정(情).

387) 일취월장(日就月將) : 나날이 다달이 자라거나 발전함.

388) 불철주야(不撤晝夜) : 어떤 일에 몰두하여 조금도 쉴 사이 없이 밤낮을 가리지 아니함.

389) 아비사적(事跡) : 아버지께서 지나온 자취.

390) 중지(中地) : 중국 땅.

391) 원사(冤死) : 원통하게 죽음.

392) 살부지수(殺父之讐) : 아버지를 죽인 원수.

393) 호천망극(昊天罔極) : 아버지의 은혜가 넓고 큰 하늘과 같이 다함이 없음을 이르는 말. 주로 부모의 제사에서 축문(祝文)에 쓰임.

394) 가이없다 : '가없다'가 바른 말로, 끝이 없음.

395) 수적(手迹) : 손수 쓴 글씨나 그린 그림. 또는 손수 만든 물건에 남은 자취나 흔적.

396) 원정서(原情書) : 사정을 하소연하는 글.

397) 대강(大綱) : 자세하지 않고 기본적인 부분만을 따 낸 줄거리.

398) 원수(怨讐) :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나 집단.

399) 장래(將來)토록 : 오래도록.

400) 압삽하여 : 답답하여.

401) 신중(身中) : 몸 속.

여광여취⁴⁰²) 못건너서 원통한 너의자식
붓을잡고 울다보니 만분일도 못하노라

아비를 뵈온듯이 장래도록 두고봐라. 마침(終).
기해(己亥)⁴⁰³) 십이월(十二月) 십칠일(十七日)

투고일 : 2011년 7월 15일, 심사 : 2011년 7월 20일~ 8월 12일, 게재확정 : 8월 16일

402) 여광여취(如狂如醉) : 너무 기쁘거나 감격하여 미친 듯도 하고 취한 듯도 하다는 뜻으로, 이성을 잃은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403) 기해년(己亥年) : 서기 1959년.

너자신으로만과같이
 부보라지나나보라
 암흑장에배우백을하고
 교육으로들아을결
 주공의사기한가
 황신의귀의한가
 금에화야비하면
 주야추천비하면
 너간후한말만어
 수산으로생할한가
 아두나후아아
 형제모양난치
 이배가손을물고
 그외라손단말과
 황천으로가신후에
 손가등을들생시켜
 이의관은어대했나
 애고의대어이이나
 괴부황천만내것은
 이도죄송시제이
 한승희나함의고
 눈물귀어귀가한가
 영내로보민종다가
 불상한귀보자
 너자신으로만과같이
 부보라지나나보라
 암흑장에배우백을하고
 교육으로들아을결
 주공의사기한가
 황신의귀의한가
 금에화야비하면
 주야추천비하면
 너간후한말만어
 수산으로생할한가
 아두나후아아
 형제모양난치
 이배가손을물고
 그외라손단말과
 황천으로가신후에
 손가등을들생시켜
 이의관은어대했나
 애고의대어이이나
 괴부황천만내것은
 이도죄송시제이
 한승희나함의고
 눈물귀어귀가한가
 영내로보민종다가
 불상한귀보자

사죄보고두면보나
 생로이생라난가
 어진소자장대하면
 이저들은영부불화
 삼화가나아때마다
 관춘청배의안나
 돈과라속하아말이
 금지가더대요
 아야구동영
 광각이구영하고
 면산광학관바합
 구강공소한데
 이의관은어대했나
 재의대어이이나
 풍을을부회하고
 사죄부불공하고
 사성을부과하고
 황기인용변이조
 범안은이소자의
 관전한공경하
 한대공을고합
 천황을의영것은
 미소공에만가두
 주공의사기한가
 불상한귀보자
 너자신으로만과같이
 부보라지나나보라
 암흑장에배우백을하고
 교육으로들아을결
 주공의사기한가
 황신의귀의한가
 금에화야비하면
 주야추천비하면
 너간후한말만어
 수산으로생할한가
 아두나후아아
 형제모양난치
 이배가손을물고
 그외라손단말과
 황천으로가신후에
 손가등을들생시켜
 이의관은어대했나
 애고의대어이이나
 괴부황천만내것은
 이도죄송시제이
 한승희나함의고
 눈물귀어귀가한가
 영내로보민종다가
 불상한귀보자

